

고(故)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문화훈장' 추서

- 10. 26. 모두예술극장에서 '2026년 문화예술 유공 시상식' 개최
- '문화훈장' 17명, '대한민국문화예술상' 6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5명 등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36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월 26일(월)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2026년 문화예술 유공 시상식'을 열어 ▲'문화훈장' 1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6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표창)' 5명 등 총 36명을 시상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했으며, 1973년에 '문화훈장'을 포함, 훈격을 높여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포상해 오고 있다.

고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문화훈장 추서 등 문화훈장 총 17명 수훈

문화훈장은 정부포상의 최고 훈격으로서,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이며, 올해는 고(故) 윤동주 시인, 고(故) 김남조 시인에게 추서한다.

윤동주 시인은 서정과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아픔과 저항 의식을 우리말 시로 남긴 우리나라 대표 시인이며, 김남조 시인은 70여 년간 1,000여 편이 넘는 시와 수필을 쓴 작가이다.

은관 문화훈장은 ▲만화가 이현세, ▲시인 유안진, ▲배우 전무송, ▲배우 박정자, ▲미술작가 고(故) 정상화 등 5명이 수훈한다. 보관 문화훈장은 ▲한복디자이너 김혜순, ▲영상감독 박경삼, ▲시인 김광규, ▲소설가 김홍신, ▲피아니스트 서계숙, ▲무용가 김숙자 등 6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시조 명인 고(故) 이영준, ▲무용가 고(故) 문병남, ▲석공예 명장 윤만걸 등 3명이, 화관 문화훈장은 건축가 천의영이 수훈한다.

소설가 김애란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6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5명 시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예술감독 정구호, ▲소설가 김애란, ▲아쟁 연주가 김영길, ▲연극 예술감독 강양원, ▲설치미술가 김승영, ▲공예 전문 기획자 임미선 등 6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각 1천만 원을 수여한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로는 8개 부문에서 예술가 8명을 선정했다. ▲소설가 예소연, ▲작곡가 김신, ▲거문고 연주자 이재하, ▲공연기획자 신바람, ▲안무가 전혁진, ▲미술작가 김영은, ▲공예가 박종진, ▲건축 전문 큐레이터 정다영 등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각 5백만 원을 수여한다.

자녀를 훌륭히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로는 ▲예술가 송원준의 어머니 기주현, ▲무용가 염다연의 아버지 염지훈, ▲배우 백지윤의 어머니 이명희, ▲시인 이정록의 어머니 이의순, ▲미술작가 한부열의 어머니 임경신 등 5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각 4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최휘영 장관은 “오늘날 ‘케이-컬처’는 수상하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바탕 위에 서 있다. 문체부는 현재와 미래의 예술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자별 세부 공적 내용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홍필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이정엽 (044-203-2725)



□ 문화훈장 : 17명

훈격	성명	주요공적
금관 (2)	 故윤동주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동아시아인이 기억하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시를 남긴 시인으로, 서정과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민족의 아픔과 저항의식을 우리말 시로 남김으로써 한국문학 정체성 확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
	 故김남조	■ 70여 년간 총 19권의 시집을 통해 1,000여 편이 넘는 시를 쓰는 등 시와 수필 작가로 한국 현대문학 발전에 공헌하였고 한국 시 문학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헌신하여 대한민국 정신문화 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음
은관 (5)	 이현세	■ 1978년 만화 '저 강은 알고 있다'로 데뷔, 1983년 '공포의 외인구단' 발표, 1997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만화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였음
	 유안진	■ 한국 현대 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교육자로서 깊이 있는 서정성과 인간의 성장 및 성숙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시, 산문, 수필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 활동하며 한국문학 지평 확장에 기여하였음
	 전무송	■ 60여 년간 한국 연극무대를 지키며 연기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창작극 발전,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공연예술의 세계화 기반 마련 및 후진 양성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음
	 박정자	■ 60여 년 이상 200편, 9,000일 무대를 지킨 한국 연극의 역사이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예술인복지법 제정 등을 이끄는 등 전방위 예술가 및 문화예술행정가로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故정상화	■ 독창적인 회화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단색화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확립하고, 한국 추상미술의 세계화와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음

훈격	성명	주요공적
보관 (6)	 김혜순	■ 1984년 김혜순한복을 설립한 이래 전통한복 제작과 전통 복식 연구에 헌신하며 우리 전통 복식의 보존과 고증, 현대적 발전 및 국제적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여함
	 박경삼	■ 60여 년간 영상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다큐멘터리, 기록영상, 애니메이션, 극영화, CF, 방송, 국제행사 영상, 교육 및 학문 연구 등 다양한 영상분야 연출과 교육 등을 담당하며 영상문화를 통한 한국문화 창달과 인재양성에 기여함
	 김광규	■ 1975년 계간 '문학과 지성'을 통해 등단한 이후 반세기 넘게 현실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시 세계로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며 시 창작, 독문학 연구, 교육 활동에 헌신하며, 한국문화 세계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함
	 김홍신	■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인간시장'과 '대발해' 등 141권 집필하였고, 민족혼과 고대사 복원, 시민운동과 사회 교육활동 등으로 문학 생태계 확장,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였음
	 서계숙	■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원로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서 한국 피아노 교육의 학문적, 예술적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연주자로서 활발한 예술활동으로 국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였음
	 김숙자	■ 1964년 데뷔 이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로서 한국 전통춤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전통의 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무작을 통해 한국 창작무용의 독자적 지평을 여는 등 한국 춤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였음

훈격	성명	주요공적
육관 (3)	 故이영준	■ 한국 전통 성악극인 시조의 보존, 전승, 대중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헌신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화를 통한 문화향유 제고 및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故 문병남	■ 1984년 국립발레단 활동 시작 후 2015년 M발레단 창단 등 대한민국 발레 예술의 정체성 구축과 창작 레퍼토리 확립에 헌신하였으며, 서양 고전 레퍼토리의 답습을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은 독자적 콘텐츠를 확보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함
	 윤만길	■ 57년여 간 석장의 길을 걸으며 전통 드잡이 기술의 맥을 잇고, 국보 보물 석조문화유산 수리 복원 등 석조기법을 보존 전승하였으며, 국립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객원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는 등 한국 석공예사 발전에 기여함
화관 (1)	 천의영	■ 30여년 간 '교육,창작,사회봉사의 3분법적 균형'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패러다임을 교육현장, 대중매체, 공공행정, 국제무대 전반에 걸쳐 혁신해 온 건축계의 대표적 지성인이자 실천가로서 기여함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 6명

성명	주요공적
정구호	■ 전시 공연 분야 예술감독 활동 등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한국 전통예술의 동시대적 확장 등 문화예술 향유 저변 확대와 대한민국 문화예술 위상 제고에 기여함
김애란	■ 동시대 한국인의 삶과 사회를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문학으로 형상화하여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문학의 공공적 가치와 위상 제고에 기여함
김영길	■ 아쟁연주자로 국악의 전통을 계승, 보존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으로 바탕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타 장르 예술인과 공유하는 등 국악의 확장에 기여함
강양원	■ 독창적인 연극 미학과 창작방법론을 구축하여 한국 연극의 예술적 다양성과 창작 역량 발전을 위해 연극 연출가로서 기여함
김승영	■ 삶과 존재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치미술 작업을 통해 국내외 전시로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공헌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확산에 기여함
임미선	■ 공예 전문 기획자이자 연구자로 활동하며 국제 규모 공예전의 기획 감독, 공예 담론 확산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공예 발전에 기여함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 8명**

성명	주요공적
예소연 (본명 전소영)	■ 소설가, 세대 갈등, 가족, 상실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등단 후 최단기간, 최연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 등 독자와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젊은 작가
김신	■ 작곡가, 제네바 국제콩쿠르 등 국제 대회에서 다수 우승, 국제 저명 음악제에서 활동하며 국가 위상 제고 및 한국 음악의 저변 확대에 공헌
이재하	■ 거문고 전통의 계승·기록과 동시대적 확장을 함께 이뤄온 연주자이자 작곡가, 음악감독으로 전통의 기록자 역할 수행, 거문고의 예술적 지평을 세계로 넓힘
신바람 (본명 신현진)	■ 창작연극 기반 기획 및 제작과 작품·관객개발, 배우 프로그램 기획·제작·운영으로 연극 생태계 확장 및 공공성·지속가능한 예술 환경 구축에 기여
전혁진	■ 안무가, 무용수, 댄스필름 감독으로 활동하며 현대무용의 신체성과 영상예술의 확장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창작세계를 구축해 온 젊은 예술가
김영은	■ 미술작가, 소리와 청취를 중심으로 역사·기술·이주의 문제를 탐구하며 국내외 주요 전시와 수상을 통해 한국 동시대 미술의 지평을 확장해 옴
박종진	■ 공예가 및 서울여자대학교 공예컬렉터블디자인전공 조교수, '26년 '로에베 재단 공예상'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공예를 대표하는 젊은 예술가
정다영	■ 건축분야 전문 큐레이터로 건축 전시 분야에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한국 건축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표창) : 5명**

어버이	자녀	선정 사유
기주현	송원준 전국장애인청소년예술제 국악 부문 최우수상, 제6회 대한민국 장애인 가요제 장려상 등	발달장애 및 희귀질환을 가진 자녀의 예술적 잠재력을 개발하여 예술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헌신
염지훈	염다연 미국 보스턴발레 정단원,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2위 및 관객상 수상 등	예술고교 진학 대신 가정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예술인으로 성장하는데 직접 참여
이명희	백지윤 발달장애 예술인으로서 무용, 연극, 뮤지컬, 방송 등에서 활동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자녀가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자극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헌신
이의순	이정록 시인, 아동문학가, 1989년 등단 이후,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	삶의 현장에서 걸려낸 투박하면서도 진실한 언어를 통해 자녀의 독창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데 기여
임경신	한부열 국내 1호 자폐인 라이브 드로잉 작가, 국내외 전시 및 라이브 퍼포먼스 등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시 기획, 홍보활동 등 전 과정에 함께 하며 동반자 역할 수행